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영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영 번역에 나타난
자·타동 교체에 관한 연구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서 정 민

영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영 번역에 나타난
자·타동 교체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영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서 정 민

서정민의 영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25일

주심 영문학박사 배 재 덕 인

부심 영문학박사 한 지 원 인

부심 영문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영문초록	ii
1. 서론	1
2.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4
2.1. 이론적 배경	4
2.1.1. 유생성	4
2.1.2. 타동성	6
2.2. 방법론	8
3. 타동사 구문의 한·영 번역양상 비교	9
3.1. 한국어 타·자동사 문장 비교	9
3.2.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	10
3.2.1. 영어 생물 주어	11
3.2.2. 영어 무생물 주어	17
3.3.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	25
3.3.1. 영어 생물 주어	26
3.3.2. 영어 무생물 주어	30
4. 결론	40
참고문헌	44

A Study on the Alternation of Intransitive • Transitive Constructions in
Korean - English Translations

Jeongmin Seo

Graduate School of English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different Korean transitive or intransitive verb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transitive verb sentences by animacy and transivity. For this study, 160 English transitive sentences (including 80 animate subject sentences and 80 inanimate subject sentences) were selected from three novels (Please Look After Mom, There a Petal Silently Falls, The Thirteen-Scent Flower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107 Korean transitive verb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transitive verb sentences. The 107 sentenc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included subjects that were translated into subjects. Most of the animate subjects didn't have changes. The Korean inanimate subjects, such as organization, nature, machine, less typical agents (eg. headaches)

and low transitivity sentences were kept to be English subjects.

The second group included subjects that were translated into non-subjects. When subjects were translated into non-subjects, only animate subject sentences could be found. At that time, Korean animate subject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indirect objects. Korean objects were kept to be direct objects in English. English subjects were the actors of each event.

Second, 53 Korean intransitive verb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transitive verb sentences. These sentenc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included Korean subjects that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subjects with 39 sentences in this case: 7 animate subject sentences and 32 inanimate subject sentences. Because intransitive sentences had lower transitivity than transitive sentences, they could take inanimate subjects in Korean sentences.

The second group included subjects that were translated into non-subjects: 3 animate subjects and 11 inanimate subjects sentences. In the case of animate subjects, every animate subject was translated into an English object. English subjects were the actors of each event. In the case of inanimate subjects, while every Korean adverbial phrase was translated into an English subject: First, Korean adverbial phrases as a place were raised into English subjects. Then Korean inanimate subject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objects. Second, by using the verb 'make' as a causative verb, Korean adverbial phrase as an instrument or a reason was raised into English subjects. Then Korean subject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objects or English prepositional phrases. Third, Korean relative

clauses were raised to English subjects. Then Korean subject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prepositional phrases.

Above all, this study shows that 33% of Korean intransitive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transitive sentences because of the animacy. Subjects of higher animacy transitive verb Korean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subjects of transitive verb English sentences. On the other hand, subjects of lower animacy intransitive verb Korean sentence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subjects of transitive verb English sentences because the higher transitivity sentences can't take inanimate subjects in Korean.



1. 서론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주어의 유생성이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김은일 외 2009). 즉, 타동사 문장에서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 주어 선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 a. This ticket admits one person.

b. *이 표는 한사람만 입장시킨다.

예문 (1)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는 비교적 무생물 주어가 자유롭게 사용 되는 반면 한국어는 무생물 주어의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는 영·한 번역에 있어서 주어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한·영으로 번역될 때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 예문 (2)는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로 번역된 경우로 주어의 변경 없이 번역되었으며, 예문 (3)은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된 경우로 주어도 변경이 있다. 다음 예문 (2) - (3)을 보자.

(2) a. 오빠는 편지지에 큼직큼직한 글씨로 엄마에게 편지를 써 보내곤 했다.¹⁾

b. Hyong-chol sent her **letters** written in large type.

(Please Look After Mom 13: 8)

(3) a. 그제나 지금이나 당신은 웃는 모습이 쎄 낫소. 그러니 의사 앞에서 그리 쩡그리고 있지 말고 웃어보시오. 웃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b. Then or now, you look best when you're laughing. So don't grown like that in front of the doctor. A smile doesn't cost you **any money**.

(Please Look After Mom 193: 28)

(2)는 영어와 한국어 모두 생물 주어, 즉 사람이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다.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 모두 어색함이 없으며, 동사 또한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등 문장 성분 또한 변화 없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예문 (3)의 경우, 한국어 문장은 자동사 문장이지만, 영어 문장은 일반동사 'cost'를 사용하는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 된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웃는 행위의 행위자는 문맥상 '당신'이다. 한국어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앞문장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문 (3)에서 생략 되어 있는 행위자는 간접 목적어 'you'로 나타나고, 한국어 주어인 '돈'은 영어 목적어인 'any money'로 격하되어 나타났다. 한국어에서 나타난 웃는 행위는 'A smile'이라는 주어로 번역되어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문 (2), (3)처럼 한국어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한국어 자·타동사에 따른 번역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어 자·타동사의 번역 양상에 따라 주어의 번역 양상도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

1) 예문에서 밑줄은 주어, 굵은 체는 목적어를, 기울임체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을 나타낸다.

생성(animacy)과 타동성(transitivity)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용한 언어병렬자료와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영어 번역 구문에서 한국어 동사가 자·타동사 일 때 어떠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지 자세히 비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논의된 결과를 정리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방법론

2.1.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한 번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념인 유생성(animacy)과 타동성(transitivity)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1.1 유생성(animacy)

유생성(animacy)이란 생명이 있는 생물(animate)과 생명이 없는 무생물(inanimate)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생명의 유무에 따라 언어표현이 다르게 부호화 되는 현상이 많은 언어에서 발견된다(Comrie 1989: 9장; Croft 1990; Yomamoto 1999; 김은일 2000).

언어에 따라서 명사형태론, 동사형태론 뿐만 아니라 어순(word order)과 주어선택(subject selection)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유생성은 생명이 있고 없음과 같이 이분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roft(1990)는 Dixon(1977)에서 발견되는 광의의 유생성 위계를 인칭계, 명사구(NP-type)와 진정한 의미의 유생성 위계로 세분화 하였다. 이 위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4) 유생성 위계(animacy hierarchy)²⁾

- a. 인칭위계
1,2 인칭 > 3인칭
- b. 명사구(NP-Type)형 위계
대명사 > 고유명사 > 보통명사
- c. 유생성 위계
인간 > 비인간 생물 > 무생물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인 유생성 위계와 관련되어 있다. (4c)의 위계를 좀 더 세분화 하면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생성 위계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영어 문법과는 달리(cf. 김은일 2000) 한국어 문법에서는 동물과 식물의 경계가 유생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 보자.

- (5) a. 나는 철수에게/*에 물을 주었다. (인간)
- b. 나는 개에게/*에 물을 주었다. (동물)
- c. 나는 꽃에/*에게 물을 주었다. (식물)
- d. 나는 벽에/*에게 물을 뿌렸다(무생물)

위의 예에서 인간과 동물은 격조사 ‘-에게’를 취하는 반면, 식물과 무생물은 격조사 ‘-에’를 취한다. 이는 유생성의 경계가 동물과 식물 사이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김은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은 인간에 포함시키고, 식물은 무생물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유생성위계(animacy hierarchy)는 Silverstein(1976)에 의해 최초로 논의된 개념임.

2.1.2. 타동성(transitivity)

이 절에서는 타동성(transitivity)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생성(animacy)은 참여자(participant)의 타고난 의미적 자질로서 동사나 다른 참여자와는 상관없이 결정이 되는 반면, 타동성은 참여자 및 동사의 의미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김은일 외 2009). Givón(1993, 2001)은 타동성을 결정하는 의미 특징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6) 전형적인 타동성의 의미론적 정의

- a. 행위자성(agentivity): 전형적인 타동절의 주어는 의도적(volitional)으로 행동하는 행위자(agent)이다.
- b. 피영향성(affectedness): 전형적인 타동절의 직접목적어는 구체적(concrete)이고 가시적으로(visibly) 영향을 받는(affected) 피동작주이다.
- c. 완료성(perfectivity): 전형적인 타동사는 실시간으로 발생한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분명하고(bounded) 종결되고(terminated), 빠르게 변화하는(fast changing) 것을 부호화 한다.

전형적인 타동구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agent)가 의도성을 갖고 행위를 시작하고 피동작주(patient)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받고 행위자체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빠르게 변화하여야 한다. 타동성이 높은 타동사 구문

과 상대적으로 타동성이 낮은 구문을 아래 예문 (7)을 통해 비교해보도록 하자.

- (7) a. The boy hit the ball.
b. The boy saw the ball.

(7a)는 소년이 공을 치는 행위는 행위자(즉, The boy)와 피동작주(the ball)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피영향성, 의지, 그리고 치는 행위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빠르게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타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7b)의 경우 보는 행위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행위자의 의도도 알 수 없고 피영향성도 드러나지 않음으로 타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Cruse(1973)는 행위자의 행위자성을 좀 더 세분화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의도성 외에도 행위자가 사건을 주도 하거나 자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행위자가 의도를 가질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사건을 주도하는 행위도 행위자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인간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의도적이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사건을 주도한다. 무생물 중 자연은 의도는 없지만 에너지를 지니고 사건을 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무생물 보다는 행위자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김은일 2010).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위해 배경이 되는 이론적 개념들인 유생성과 타동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이론들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문장이 영어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될 때, 한국어 동사의 자·타동사유형에 따른 주어 변경 여부와 번역양상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2. 방법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병렬언어자료는 소설 ‘엄마를 부탁해’,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열세가지의 꽃향기’ 이다. 각 소설의 영문판 소설인 ‘Please Look After Mom(이하 PLAM)’, ‘There a Petal Silently Falls(이하 TPSF)’, ‘The Thirteen-Scent Flowers(이하 TTSTF)’에서 무생물 주어 타동사 문장은 총 80개 발견되었다. 우선 이 80개의 무생물 주어 구문과 비교하기 위해 80개의 생물 주어 구문을 발췌하였다. 생물 주어 구문 발췌시 원고 번역자에 따른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무생물 주어가 발췌된 원고 내에서 생물 주어인 타동사 구문을 발췌하였다. 발췌한 문장을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찾아서 함께 발췌하였다. 이렇게 발췌된 무생물 주어 80개와 생물 주어 80개 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하고자 한다.

한국어 동사의 자·타동사를 구분 한 뒤 이를 다시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생물 주어, 무생물 주어 문장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주어 변경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영 번역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3. 타동사 구문의 한·영 번역 양상

3.1. 한국어 타·자동사 문장 비교

병렬언어자료에서 영어 문장을 발췌할 때 타동사 문장만을 발췌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을 발췌해 보니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와 자동사 문장이 타동사 문장으로 바뀌어 번역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8) a. 다급한 동생의 목소리는 그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다.
b. His younger brother's urgent voice on a midsummer afternoon *created a fissure* in his daily life.
(PALM 66: 25)

예문 (8)의 동사는 각각 ‘일으키다’와 ‘create’로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변화 없이 번역되었다.

다음은 아래 예문 (9)와 같이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 (9) a. 지하철이 들어오는 [...]
b. [...] the subway train *enter the station*. (PALM 10: 1)

예문 (9a)의 동사는 자동사 ‘들어오다’이며, 영어 타동사 ‘enter’로 번역 되었다.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 타·자동사 문장의 영어 타동사 문장 번역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어문장 타 · 자동사 문장의 영어 타동사 문장 번역비율

	한국어 타동사 문장	한국어 자동사 문장	합계
영어 타동사 문장	107개(66.8%)	53개(33.2%)	160개(100%)

한국어 타동사 구문이 영어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107개 (66.8%)이다. 또한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53개(33.2%)이다. 이처럼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 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 1:1로 대응되어 번역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각각의 번역 양상을 자세히 알아보자.

3.2.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문장은 모두 107개문장이다. 이들을 다시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영어 주어가 생물인 경우 75개,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32개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시 주어의 변경 여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통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한국어 타동사 문장의 유생성에 따른 영어주어의 번역유형 차이

	영어 생물 주어	영어 무생물 주어	합계
주어유지	72개(96.0%)	32개(100.0%)	104개(97.1%)
주어변경	3개(4.0%)	0개(0.0%)	3개(2.9%)
합계	75개(100%)	32개(100%)	107개(100%)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영어 생물 주어 문장 수는 75개이다. 반면,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영어 무생물 주어 문장은 32개이다. 영어 생물 주어 문장이 영어 무생물 주어의 문장 수 보다 많다. 왜냐하면 한국어 타동사 문장의 주어는 유생성의 제약을 받아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영어는 유생성의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번역 양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3.2.1. 영어 생물 주어

한국어 타동사가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 영어 생물 주어 문장은 총 75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이때, 한국어 주어가 영어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는 72개이며,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는 3개이다. 각각의 번역양상

을 자세히 살펴보자.

A. 주어유지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는 72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주어는 ‘-은/는’, ‘-이/가’로 표현되는 성분이 영어 주어로 번역되며, 이때 목적어는 ‘-을/를’로 표현되는 성분이 영어 목적어로 번역된다. 그러나 동사의 번역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동사의 의미가 변화 없는 경우와 동사의 의미변화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58개의 문장이 다음 예문 (10) - (11)처럼 동사의 의미 변화 없이 번역된다.

- (10) a. 네가 아무 장식이 없는 **민짜 원피스**를 고르자 [...]
b. You chose a **plain dress**, but [...] (PLAM 8: 8)
- (11) a. 엄마는 새로 나온 **라면**을 사다 장독의 빈 항아리에 숨겨놓고 늦은 밤에 큰 오빠에게만 끓여주고 싶어 했다.
b. Mom would *buy* **ramen** and hide it in an empty jar in the row of clay jars, wanting to save for Hyong-chol.
(PLAM 15: 23)

예문 (10)과 (11)은 한국어 주어 ‘네’가 ‘You’로, ‘엄마’가 ‘Mom’으로, ‘민짜 원피스’가 ‘a plain dress’로, ‘라면’이 ‘ramen’으로, 한국어 동사 ‘고르다’와

‘사다’가 각각 ‘choose’와 ‘buy’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의 변화 없이 번역되었다.

한국어 문장에서 주어가 표현되지 않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 (12)를 보자.

- (12) a. ∅(=우리)³⁾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할 수도 있어
b. We can hire **someone** to give out flyers. (PLAM 7: 22)

예문 (12a)에는 한국어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모호성⁴⁾’과 관련이 깊다. 주어가 생략될 때 모호성이 크지 않다면 그 주어는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생략된 주어의 대부분은 대명사로 앞에서 충분히 주어의 유추가 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국어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영어 문장처럼 ‘우리’를 넣어보면, ‘우리는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할 수도 있어.’로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특성상 주어가 생략된 경우이므로 주어 변경 없이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어·영어 간의 번역에 있어 동사의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주어가 유지 되는 문장 중에 한·영 번역에서 동사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14개의 문장에서 나타났다. 다음 예문 (13)은 동사 ‘have’를 사용하여 번역된 문장이다.

- (13) a. 너의 여동생은 미국에서 **아이하나**를 더 낳아서 귀국했다.
b. She *had* **her third baby** in the States and then returned.

3) ‘∅’ 표시는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임.

4) ‘모호성’의 개념에 관한 것은 김은일, 정연창(2006)을 참고하기 바람.

(PLAM 50: 26)

한국어는 ‘낳아서’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번역할 때는 타동사 ‘have’를 사용했다. 의미적으로 넓게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행위가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되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다’가 아닌 ‘아이를 낳다’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예문 (14) - (15)는 일반 동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각 동사의 상당 어구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현되면서 목적어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 (14) a. 먼저 파랑손이 말을 꺼냈다.
b. Green hand's **broke the silence.** (TTSF 137: 6)
- (15) a. 그녀는 [...] 자신의 유방을 건드려보았다.
b. She *passed her hands over her breasts*, [...].
(TTSF 128: 19)

목적어를 보면 (14)의 한국어 목적어는 ‘말’이지만 영어 목적어는 ‘the silence’이다. (15)에서 한국어 목적어는 ‘자신의 유방’이지만 영어 목적어는 ‘her hands’이다. 이는 동사가 변화되면서 목적어 또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14a)의 목적어인 ‘말’은 생략되었으며, (15a)의 목적어는 전치사구로 격하되어 번역되었다. (14)의 한국어 동사는 ‘꺼냈다’이고, (15)의 한국어 동사는 ‘건드려보았다’이다. 하지만 영어 동사는 각각 ‘broke’이고

‘passed’ 이다. 이는 영어 목적어와 동사를 결합하여 한국어의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broke the silence’가 한국어로 직역하면 ‘침묵을 깨다’라고 할 수 있다. 침묵을 깨는 행위 자체가 말을 먼저 했다는 의미이며 (15)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passed her hands over her breasts’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유방위로 손을 스쳤다’가 된다. 이는 자신의 유방을 건드려 보았다는 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목적어와 동사가 하나의 영어 동사로 결합되어 표현되며, 따라서 영어 목적어도 한국어 목적어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문은 아래 (16)과 같다.

- (16) a. Ø(=그들) 물을 주고 따뜻하게 비닐을 덮어주고, 화분에 옮겨 집 안으로 들여놓아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b. They *watered the flowers*, provide them with a warm plastic covering, potted them, and brought them inside, but nothing helped. (TTSF 142: 19)

예문 (16)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한국어의 특성상 생략된 주어가 (16b)에서는 ‘They’로 표현되었으며, (16a)의 목적어와 동사인 ‘물을 주다’가 영어 동사 ‘watered’로 표현되었다. (16b)에서 목적어는 행위의 대상인 ‘the flowers’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생물 주어 타동사 문장이 한·영으로 번역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생물 주어의 타동사 번역은 큰 변화 없이 번역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지만 동사가 변화되면서 목적어가 변화되는 경우, 한국어 목적어가 동사와 결합하여 영어 동사화 되고 행위의 대상인 피동작주가 목적어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B. 주어변경

한국어 타동사가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한국어 비주어가 주어로 변경되는 경우는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다. 모두 한국어 주어가 영어 목적어로 변경되는 문장으로 영어 수여동사를 이용하여 번역되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17) a. 나는 내미는 옷을 받아들었어.

b. He handed me the clothes. (TPSF 31: 25)

예문 (17)에서 직접 목적어는 변함없이 표현되었다. 한국어 주어가 여격⁵⁾ 조사 ‘-에게’에 해당하는 간접목적어로 격화되고, ‘전해주다’라는 의미의 수여동사 ‘hand’가 사용되었다. 한국어 동사는 ‘받아들다’로 옷을 받는 사람(영어 간접목적어)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으며, 영어 동사는 ‘hand’로 옷을 건네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사의 변경과 더불어 주어가 ‘나’에서 ‘He’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어 주어인 ‘나’를 간접목적어로 격하시켜 표현하였다.

이상으로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주어가 생물인 경우를 주어의 변화 여부에 따라 나누어 알아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자.

5) 목적어가 여격이 되는 영어 타동사에는 give, ask, teach, send, show, tell, promise, insult, thank, obey 등이 있다. 여격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Givón(1993), 우형식(1996)을 참고하기 바람.

3.2.2. 영어 무생물 주어

한국어 타동사가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 영어 무생물 주어 문장은 총 32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이때, 한국어 주어가 영어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가 32개로 주어가 변경되는 문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어가 유지되는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보자.

A. 주어유지

주어가 무생물인 32개의 문장 모두 주어가 유지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시 유사행위자와 타동성이 낮은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유사행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① 유사행위자

무생물 주어 중에는 의도 혹은 에너지를 가지고 피동작주에게 영향을 주어 그 유생성과 행위자성면에서 생물 주어의 역할을 하고 그 결과 유사행위자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병렬언어자료에서 등장한 유사행위자의 종류와 빈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사행위자의 종류와 빈도

유형	기계	기관	신체일부	자연	질병	합계
빈도	1개	3개	7개	5개	3개	19개

김은일(2010)은 유사 행위자의 대표적인 예로 사건을 야기할 에너지가 있는 자연, 인간행위자가 암시되는 기관과 기계를 들고 있다. 본 연구의 병렬언어자료에서는 기계를 나타내는 문장이 1개, 기관을 나타내는 문장이 3개, 신체일부를 나타내는 문장이 7개, 자연을 나타내는 문장이 5개, 질병인 경우 3개를 찾을 수 있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A. 기계

병렬언어자료에서 기계를 나타내는 문장은 1개 문장이 발견되었다. 기계가 주어로 등장하여 번역된 경우 예문 (18)에서처럼, 어색함 없이 주어자리를 지키고 있다.

- (18) a. 벽시계는 오후세시를 가리키고 있다.
 b. The clock in the wall *shows that it is 3 p.m.*
 (PLAM 127: 17)

예문 (18)에서는 벽시계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위자이기 때

문에 무생물이 주어로 오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한국어에서도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없이 영어에서도 ‘the clock’이 주어인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문장의 동사가 한국어는 ‘가리키다’이고, 영어는 ‘show’로 의미가 다르다. 한국어는 타동성(transitivity)이 낮은 동사의 경우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며 영어는 타동성이 높은 동사도 무생물 주어를 허용한다(김은일 2010). 예문 (18a)에서 ‘벽시계는 오후세시를 보여 준다’라고 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타동성이 낮은 동사 ‘가리키다’를 사용하고, 영어는 타동성이 높은 동사 ‘show’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B. 기관

병렬언어자료에서 기관을 나타내는 무생물 주어 문장은 3문장이 발견되었다. 다음 예문 (19)를 보자.

- (19) a. [...] 우리 국제 화훼 전시협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Exhibition
have a special interest [...]. (TTSF 165: 5)

예문 (19)의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orticultural Exhibition’은 기관에 해당하는 무생물 주어로서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며 의도성을 가지고, 문장 속 행위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물 주어와 동일하게 한국어로 표현되었고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C. 신체일부

생물-주요인간-의 신체일부가 등장한 경우, 그 부분이 마치 의지를 가진 소유주처럼 의미가 확대되어 쓰였다. eyes, hands, voice가 7개의 문장에서 나타나 아래 예문 (20)처럼 주어자리를 유지하여 번역되었다.

- (20) a. 당신이 죽은 뒤에 아내의 손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눈을 끌어주고 [...]
b. Your wife's hands would close **your eyes** on last time, [...]
(PLAM 140: 16)

(20a)의 ‘아내의 손’이 ‘Your wife's hands’로, 목적어 ‘당신의 눈’이 ‘your eyes’로 번역되었다. 동사의 의미가 약간 변화되었는데, 한국어 ‘끌다’가 영어 ‘close’로 표현되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이 눈을 감겨 주는 행위를 한국어로 ‘끌다’로 표현 하였다. 이는 ‘끌어주고’ 대신에 ‘감겨주고’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문장의 변화 없이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D. 자연

다음은 무생물 주어가 자연인 경우를 살펴보자. 바람, 태양, 구름 등과 같은 자연은 무생물로 의지는 지닐 수 없지만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사건을 주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도 비록 인간 행위자 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행위자 역할을 하여 타동사의 주어자리에

위치 할 수 있다(2009 김은일). 따라서 한국어 주어 자리에도 자연행위자는 별 문제없이 위치하고, 영어로 번역될 때에도 변화 없이 번역이 이루어진다. 병렬언어자료에서 자연은 5문장이 발견되었다. 다음 예문 (21)을 살펴보자.

- (21) a. 달도 없는 밤, 커다란 옥실 조류의 날개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덮어 내리고~~ 있는 구름장.
 b. Clouds covered the moonless sky like the huge wings of a
 scavenging bird. (TPSF 27: 11)

예문 (21a)는 ‘구름장’이 주어, ‘하늘’이 목적어이며 동사는 ‘덮어 내리다’이다. (21b)도 마찬가지로 ‘cloud’가 주어로 ‘the moonless sky’가 목적어로 동사는 ‘cover’가 사용되었다. 문장의 변화 없이 자연에 해당하는 무생물 주어가 유지되어 번역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주어를 의인화 시켜 마치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처럼 나타낸 문장이다. 예문 (22)을 살펴보자.

- (22) a. 살색 꽃이 피는 장미 덩쿨들은 환호를 내지르며 **가시**를 ~~돋우~~켰제.
 b. The rose vines with pale-pink buds will flex **their spikes**, cheering.
 (PLAM 205: 6)

예문 (22)는 주어인 ‘장미 덩쿨들’을 의인화 시킨 문장으로 실제로 장미 덩쿨이 환호를 지르거나 사람이 손을 뻗듯이 가시를 돋우진 않는다. 하지만

무생물 주어를 의인화시킴으로 해서 생물이 하는 행동인 것처럼 표현하여 한국어 무생물 주어 문장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될 때에도 한국어 주어 ‘장미 넝쿨들’은 ‘The rose vines’로, 목적어 ‘가시’는 ‘their spikes’로 변화 없이 번역되었다.

E. 질병

다음은 무생물 주어가 질병의 증상으로 쓰인 경우를 알아보자. 병은 스스로의 의지 없이 자연 발생하나 결과에 대한 파급력이 큰데다 우리말에서도 특정 병을 그대로 쓰거나 ‘병마’로 비유하여 생물처럼 주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유사행위자는 아니지만 특정한 병명이나 그 병에 따른 증상 등을 주어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병렬언어자료에서도 3개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모두 예문 (23)처럼 ‘두통’이 주어로 사용된 문장이다. 다음 예문 (23)를 보자.

- (23) a. 두통은 엄마의 그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 갔다.
b. Mom's headaches stole the smiles from her face.
(PLAM 59: 3)

예문 (23)에서 한국어 주어 ‘엄마의 두통’은 ‘Mom's headaches’로, 목적어 ‘웃음’은 ‘the smiles’로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이처럼 두통은 엄마에게 의도적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웃음을 빼앗아간 행위의 행위자로 사용되었으므로 한국어 무생물 주어가 가능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영어 주어로 번역되

었다.

지금까지 무생물 주어가 유사행위자의 역할을 하여 한국어 무생물 주어 타동사 문장으로 나타나고 영어 타동사 무생물 주어 문장으로 번역되는 문장들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 유사행위자는 아니지만 타동성이 낮아 무생물 주어 타동사 문장들로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자.

② 타동성이 낮은 문장

타동성이 낮은 문장은 한국어 타동사 문장에서도 무생물 주어로 표현 될 수 있다. 13개의 문장에서 타동성이 낮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가 타동사 문장으로 표현 된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때 예문 (24) - (25)는 행위자성과 피영향성이 낮아서 타동성이 떨어지는 문장이다.

- (24) a. 그런 하찮은 사고가 그녀에게 생생한 무서움을 만들었다.
b. This trifling incident gave her a fresh taste of fear.
(TTSF 125: 6)

- (25) a. 봄바람결 같은 밍크가 내 늙은 얼굴을 포근히 감싸주었재.
b. The mink, like a spring breeze, gently embraced my old face. (PLAM 203: 19)

(24a)의 주어 ‘하찮은 사고’가 의도를 가지고 주체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무서움을 준 것이 아니다. 또한 ‘하찮은 사고’는 무서움의 원인이 되었지만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를 준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났으므로 완료성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 (24)는 행위자성과 피영향성이 낮은 타동사 문장으로서 한·영 번역에 있어서도 주어 ‘하찮은 사고’가 ‘This trifling incident’로 변화 없이 영어 주어로 나타난다. 예문 (25a)의 주어 ‘밍크’는 ‘밍크코트’를 의미한다. ‘밍크’가 목적어 ‘얼굴’에게 가시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밍크’가 의도적으로 행동 하거나 스스로의 에너지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예문 (25)는 행위자성, 피영향성 두 가지가 모두 낮아 타동성이 낮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 (25)도 한국어 무생물 주어 문장으로 사용 가능하며 변화 없이 영어 무생물 주어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다음 예문 (26)은 완료성, 행위자성, 피영향성 모두가 낮아 타동성이 낮은 문장이다. 예문 (26)을 살펴보자.

- (26) a. 그 마을은 아주 안온해 보였고, 완전히 어둠에 잠긴 산에 겹겹이 둘러 쌓여 바이와 프랑손의 **지친마음을** 무한히 어루만져 주었다.
 b. The village felt cozy surrounded by the folds of mountains now enveloped in darkness, and it offered **infinite solace** to their weary minds. (TTSF 145: 19)

예문 (26)의 주어 ‘마을’은 ‘지친마음’에게 의도적이거나 자신의 에너지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자성이 낮으며 ‘지친마음’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으므로 피영향성도 낮다. 또한 주어인 ‘마을’이 목적어인 ‘지친마음’에게 무한히 어루만져 준다는 행동은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

계가 분명하게 종결되지도 빠르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완료성도 낮다. 즉 행위자성, 피영향성, 완료성 모두가 낮아서 타동성이 낮은 문장이다. 따라서 예문 (26)역시 한국어 무생물 주어도 사용 가능하며 변화 없이 영어 무생물 주어로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무생물 주어 타동사 문장이 한·영으로 번역되는 여러 가지 경우 중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들 문장들을 주어가 유사행위자인 경우와 타동성이 낮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3.3.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

병렬언어자료에서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문장은 모두 53문장이다. 이들을 다시 주어의 유생성에 따라 나누면 영어 주어가 생물인 경우 10개,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 43개이다. 이는 다시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와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로 분류 할 수 있다. 그 전체적인 통계는 아래 <표4> 와 같다.

<표4> 한국어 자동사 문장의 유생성에 따른 영어주어의 번역유형 차이

	영어 생물 주어	영어 무생물 주어	합계
주어유지	7개(70.0%)	32개(74.4%)	39개(73.6%)
주어변경	3개(30.0%)	11개(25.6%)	14개(26.4%)
	10개(100%)	43개(100%)	53개(100%)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주어를 유생성에 따라 분류해보자. 생물주어의 경우는 10개의 문장이 나타났으며, 영어 무생물 주어 문장은 43개의 문장을 병렬언어자료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는 생물 주어의 문장 수가 많았던 반면에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 영어 무생물 주어 문장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가 유생성의 제약에 따라 타동사 문장에서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 문장이 자동사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아래에서 번역양상을 자세히 알아보자.

3.3.1. 영어 생물 주어

한국어 자동사가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 영어 생물 주어 문장은 총 10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이때, 한국어 주어가 영어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는 7개이며,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는 3개이다.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와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A. 주어유지

한국어 자동사가 영어 타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는 7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이는 다시 이중주어 구문, ‘have’, ‘take’를 사용한 구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아래 예문 (27)처럼 한국어 문장이 이중주어를 사용하여 자동사로 표현된 문장이다.

(27) a. 엄마, 이런 옷이 좋아.

b. I like these kinds of clothes. (PLAM 9 :23)

(27a)는 주어가 ‘엄마’와 ‘이런 옷’으로 주어가 두개인 문장이며 동사는 ‘좋아’인 자동사 문장이다. 이중주어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두 가지 주어 중 하나는 목적어로 격하되어 번역된다. 발견된 예문의 주어를 비교해 보면 예문 (27)처럼 두 주어 중 하나는 생물, 다른 하나는 무생물이다. 영어 문장에서 (27b)처럼 두 가지 주어 중에 유생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생물 주어가 목적어로 격하되어 번역되고 생물 주어는 그대로 주어를 유지한다.

다음은 ‘have’가 존재의 의미로 사용되어 번역된 예문이다. 아래 예문 (28)을 살펴보자.

(28) a. [...] 아무런 의도도 없었다고

b. But he *had* nothing specific in mind [...]. (TPSF 6: 8)

예문 (28a)는 ‘없다’를 사용한 자동사 문장이지만 (28b)는 ‘have’를 사용한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어동사 ‘have’를 한국어의 상당어구인 ‘가지다’로 번역하면 전혀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I have a son’의 번역문으로 ‘나는 아들을 한 명 가진다.’는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다.’에 비해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김은일 외 2009)⁶⁾. 따라서 한국어 존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경우 영어 ‘have’를 사용 할 수 있다.

6) Ikegami(1991)는 영어는 ‘HAVE-언어’인 반면 일본어는 ‘BE-언어’라고 주장한다. 한국어도 일본어처럼 ‘BE-언어’에 속한다.

이처럼 예문 (28)은 존재 구문으로 타동사 ‘have’와 함께 사용되었다. (28a)의 사람 주어는 앞 문장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으나 영어는 주어 중심의 언어이므로 생략되지 않고 ‘he’로 표현되었다. 또한 특수조사 ‘-도’를 사용하여 표현한 ‘의도’는 (28b)의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take’를 사용한 문장으로, 목적어의 유생성에도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다음 예문 (29)를 보자.

- (29) a. 엄마는 너의 손을 잡고 시장 통 옷가게로 갔다.
b. Mom took **you** to a clothing store at the market.
(PLAM 9: 7)

예문 (29)의 주어는 유지되었다. (29)의 한국어 목적어는 ‘너의 손’이고, 영어 목적어는 ‘you’이다. 목적어의 유생성이 한국어에서는 무생물, 영어는 생물로 바뀌었다. Ikegami(1991)⁷⁾에 의하면 영어는 인간 행위자를 상당히 강조하는 언어이다.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인간 행위자가 억제(suppress)되는 경향이 있다(cf. 김은일, 정연창 2008). 예를 들어 ‘I don't understand you’의 번역문으로서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너의 말(your words)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예문 (29)에서도 (29a)의 목적어는 ‘너의 손’인 반면 (29b)의 목적어는 ‘you’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목적어의 유생성이 변화됨에 따라 동사도 ‘잡고 가다’가 아닌 ‘데리고 가다’의 의미인 ‘take’가 사용되었다.

한국어 자동사 구문이 영어 타동사 구문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7개였다. 이때, 한국어 주어가 이중주어인 경우와 영어 동사 ‘have’가 ‘있다’의 존재

7) 더 자세한 내용은 Ikegami(1991: 300-303)을 참고하기 바람.

구문으로 표현된 유형, ‘take’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유형이 있었다. 다음은 주어가 비주어로 변화되어 번역되는 유형을 살펴보자.

B. 주어변화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로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주어가 비주어로 번역되는 경우는 3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3개 문장 모두 한국어 주어가 영어 목적어로 변경되었다. 이들은 모두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다. 다음 예문 (30)을 보자.

- (30) a. 광장은 바로 앞에 보였지만, 복잡한 미로를 통과하고 또 통과한 뒤에야 그곳에 설 수 있었다.
b. You could see **the square**, but you could her there only through a convoluted maze. (PLAM 11: 5)

예문 (30)은 행위자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고, 피동작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도 없으며, 행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타동성이 낮다⁸⁾. 예문 (30a)에서 동사는 ‘보였지만’은 ‘보이다’의 과거형이다. 이처럼 한국어는 행위자가 의도성을 갖지 않을 때 행위자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에 행위자 비의도성 접미사인 ‘이, 히, 리, 기’를 취함으로써 타동성이 낮은 문장을 나타내며, 이때 목적어에는 ‘이/가’를 취하는 형태이다. 예문 (30a)의

8) Givón에 의하면, 동사 see, hear, feel, know, understand, think, want 등과 같이 지각, 지식, 감정 등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는 덜(less)전형적인 타동사로서 타동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광장은’은 원래 ‘광장을’의 형태지만 ‘너는’이 생략되고 ‘광장을’이 격상하여 주어 ‘광장은’으로 표현된 자동사 문장이다. 이러한 형태를 반영하여 (30b)에서는 ‘You’가 주어로 ‘the square’가 목적어로 번역되었고 지각을 나타내는 ‘see’를 사용한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3.3.2. 영어 무생물 주어

한국어 자동사가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 영어 무생물 주어 문장은 총 43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이때, 한국어 주어가 영어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는 32개이며,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는 11개이다. 주어가 유지되는 경우와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A. 주어유지

한국어 자동사 무생물 주어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무생물 주어 문장으로 바뀌어 번역되는 유형의 문장들은 32개 문장을 발견하였다. 한국어가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동성이 낮은 자동사로 표현되었고, 영어는 타동사 문장에서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기 때문에 타동사로 번역되었다. 이는 다시 동사의 의미변화 여부에 따라서 분류 할 수 있다.

A-1. 동사의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

동사의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는 동사의 자·타 동사 여부만 바뀔 뿐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쓰인다. 병렬언어자료에서 17개의 문장이 동사의 의미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부사절이 영어의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로 번역되는 경우, 장소의 부사구가 목적어로 변경되어 번역되는 경우, ‘속격 - 명사구’가 ‘소유주 - have - 목적어’의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래 예문 (31)은 한국어 문장의 부사절이 영어의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로 바뀌는 경우이다.

- (31) a. 네가 그의 어머니를 모독했다고 그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b. His expression tells *you that you've insulted his mother*.
 (PLAM 60: 10)

예문 (31)의 주어는 ‘그의 표정’과 ‘His expression’으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동사인 ‘말하다’가 (31a)에서는 자동사로 표현된 반면, (31b)에서는 타동사로 표현되었다. 동사의 유형이 바뀔에 따라 문장의 구조도 바뀌었다. (31a)의 ‘네가 그의 어머니를 모독했다고’라는 부사절이 각각 영어의 간접목적어 ‘you’와 직접목적어 ‘that you've insulted his mother’로 표현되었다.

이번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목적어로 변경되어 번역된 경우이다. 예문 (32) - (33)을 보자.

- (32) a. 막 기울기 시작한 가을볕이 서향집마당에 가득 차 있었다.
 b. The setting autumn sunlight filled **the yard** of the house,

which faced west. (PLAM 19: 28)

- (33) a. 내 머릿속에 그 냄새가 배기 시작한 거야.
b. The smell penetrated **my brain** and stuck there.
(TPSF 69: 12)

예문 (32)의 한국어 주어 ‘막 기울기 시작한 가을볕’은 ‘The setting autumn sunlight’로, 동사 ‘가득 차다’는 ‘filled’로 번역되었다. 예문 (33)도 주어 ‘그 냄새’가 ‘The smell’로, 동사 ‘냄새가 배다’가 ‘penetrated’로 변화 없이 번역되었다. 예문 (32) - (33) 둘 다 ‘~에’ 해당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영어 타동사 문장의 목적어로 사용되어 ‘서향집마당’과 ‘내 머릿속’이 목적어 ‘the yard’, ‘my brain’으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속격 - 명사구’가 ‘소유주 - have - 목적어’의 형태로 번역되어 구문이 완전히 변경된 경우이다. 다음 예문 (34)을 보자.

- (34) a. 꽃마다 조금씩 다른 바람국화의 향기는 새벽과 밤중에 가장 강해.
b. Each of the wind chrysanthemums had **a slightly different scent**, which was strong at dawn and late at night.
(TTSF 43: 6)

(34a)의 주어 ‘바람국화의 향기’는 ‘속격 - 명사구’의 형태이다. (34b)로 번역이 될 때 동사는 ‘have’를 사용하여, ‘속격 - have - 목적어’의 형태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꽃마다 조금씩 다른 바람국화의 향기는’이 하나의 문장

으로 번역되었으며, (34a)의 술어인 ‘새벽과 밤중에 가장 강해’는 목적어 ‘a slightly different scent’의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예문 (34)은 문장 성분의 변경뿐만 아니라 구문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어 무생물 주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무생물 주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동사의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영어 무생물 주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동사의 의미변화가 있는 문장을 살펴보자.

A-2. 동사의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

15개의 문장이 한국어 자동사가 영어 타동사로 번역되면서 동사의 의미도 함께 변화하였다. 15문장을 다시 분류하면 ‘make’가 사용된 경우, 존재의 ‘have’가 사용되어 번역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make’가 사용된 경우를 알아보자. 영·한 번역에서도 무생물 주어 문장에 ‘make’와 같은 타동성이 높은 동사가 오면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번역이 어려워 자동사로 나타낸다. 한·영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예문 (35)를 보자.

(35) a. 소문들이 [...]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b. Those rumors made **tongues wag** [...]. (TTSF 182: 32)

예문 (35)의 경우 ‘소문들’은 주어로서 영어 주어 ‘Those rumors’로 변화 없이 번역되었지만, 동사 ‘퍼져나가기’가 ‘make’로 번역되었다. (35a)의 주

어인 ‘소문들’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어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 (35a)를 ‘make’의 상당어구인 ‘만들다’를 이용해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소문들은 혀 흔들기를 만들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타동성이 낮은 자동사 문장으로 표현했으며, 영어의 경우 타동성이 높은 동사를 이용하여 무생물 주어를 번역하는데 있어 큰 제약이 없으므로 타동성이 높은 동사인 ‘make’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다음은 존재의 ‘have’가 사용되어 번역 되는 경우이다. 예문 (36)를 보자.

- (36) a. 엄마 얼굴이 불그스레하게 빛나는걸 보는 게 눈이 부셨어.
b. Her face *had a reddish gleam* that blinded me.
(TPSF 70: 13)

형용사 술어 ‘불그스레하게 빛나다’를 목적어 ‘a reddish gleam’으로 표현하고, 동사 ‘have’를 써서 번역하였다. 한국어 ‘가지다’로 표현된 문장은 아니지만 예문 (28)처럼 한국어 존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경우 영어 ‘have’를 사용 할 수 있다.

한국어 자동사 무생물 주어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무생물 주어 문장으로 바뀌어 번역되는 유형의 문장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사의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와 동사의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주어가 비주어로 변화되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자.

B. 주어변경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주어가 변경되는 경우는 총 11개의 문장에서 나타난다. 모든 문장에서 한국어 부사절이 영어 주어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영어 주어로 번역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문장은 사역동사를 사용하여 번역되는 유형과 기타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B-1. 장소가 영어 주어로 번역

먼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영어 주어로 번역되고 한국어 주어는 영어 목적어로 바뀌어 번역되는 경우를 알아보자. 한국어에서 ‘~에’에 해당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영어 주어로 번역되었다. 다음 예문 (37)을 보자.

- (37) a. 오래 비워둔 집 문패엔 당신 이름만 새겨있다.
b. The nameplate of the long-empty house has only **your name** engraved on it. (PLAM 115: 23)

예문 (37a)에서 주어는 특수조사 ‘~만’을 이용하여 표현되었지만, ‘~만’ 대신에 주격조사 ‘~이’로 표현하면 ‘오래 비워둔 집 문패엔 당신 이름이 새겨 있다.’로 표현 하였을 때 자연스럽다. 따라서 주어는 ‘당신 이름’이라 볼 수 있다. (37b)로 번역될 때 한국어 주어는 목적어로 격하되어 번역되었으며, ‘~에’에 해당하는 장소의 부사구가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되었다. 그리고 ‘새

겨있다’는 자동사 문장이 ‘have’를 사용한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예문 (28), (36)처럼 한국어 존재 구문이다. 서술어 ‘새겨있다’는 ‘have’와 함께 ‘새기다’라는 의미의 ‘engrave’를 형용사화 하여 번역함으로서 표현하였다.

예문 (38)은 격조사 ‘~에’에 해당하는 장소는 전치사구로 변함없이 나타나고 주어와 목적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장소가 주어로 나타나는 문장이다.

- (38) a.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옛집의 문짝대신 거실을 비롯한 모든 방에 유리창이 달려 있었다.
 b. The house, newly rebuilt a few years ago, **has windows** in every room, especially in the living room, unlike the old house, which had one sole windowpane in the door.
 (PLAM 95: 23)

(38b)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주어가 등장하고 (38a)의 주어 ‘유리창’은 (38b)의 목적어로 격하되어 번역되고, 동사는 ‘달려있다’로 표현된 자동사 문장이다. (38b)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have’를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38b)의 주어는 전형적으로 ‘~에게’를 붙이는 장소표현의 유형이 주어로 번역된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 현재의 집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38b)에서 ‘The house’가 주어로 표현되었다. 지금까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영어의 주어로 이동되고, 한국어 주어는 영어 목적어로 격하되는 유형을 보았다.

B-2. 사역동사를 사용하여 번역

사역동사를 사용하여 번역된 문장을 살펴보자. 다음 예문 (39)는 한국어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영어 목적어로 번역된 경우이다.

- (39) a. 엄마의 손으로 인해 ∅(=사무실) 반들반들 윤이 났다.
b. Mom's hands made **the office** gleam. (PLAM 76:5)

예문 (39a)에서 주어는 앞문장에서 나타난 ‘사무실’이므로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동사는 ‘윤이 났다’인 자동사 문장이다.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격조사 ‘-으로’를 취한 ‘엄마의 손’이 (39b)의 주어로 격상되어 번역되었으며, 생략된 주어인 ‘사무실’이 격하되어 목적어로 표현되었다. 또한 한국어 자동사 구문의 서술어인 ‘윤이 났다’는 사역동사 ‘make’와 목적 보어 ‘gleam’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다음 예문 (40)은 생략되어 있는 행위자가 영어 목적어로 번역되는 경우이다.

- (40) a. 그녀는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저녁나절 ∅(=그녀) 선잠이 들었다.
b. She had a difficult time sleeping through the night. Exhaustion would **cause her** to doze off early in the evening. (TTSF 131:25)

예문 (40)에서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라는 이유의 부사절이 영어 주어 ‘Exhaustion’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사역동사 ‘cause’를 사용하였으며, 영어 목적어는 앞문장의 주어이자 행위자인 ‘her’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주어인 ‘선잠’은 목적 보어 ‘to doze off’로 격하되어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어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나 행위자가 목적어로 이동되고, 동사는 사역동사를 이용하여 번역되는 유형을 보았다.

B-3. 기타 유형

다음 예문 (41)은 관계절이 영어 주어로 격상되는 경우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 (41) a. 그를 보자 눈이 약간 빛나는 듯 했으나 [...]
b. The sight of him brought a faint glimmer to her eye, [...]
(TPSF 56: 27)

위의 예문 (41a)의 주어는 ‘눈’이고 동사는 ‘빛나다’인 자동사 문장이다. (41b)에서 주어 ‘눈’은 ‘to her eye’인 전치사구로 번역되었고 관계절인 ‘그를 보자’가 ‘The sight of him’으로 변화되어 주어로 번역되었다. 서술어 ‘약간 빛나는 듯 했으나’는 명사화 되어 목적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41b)에서 ‘a faint glimmer’로 표현되었으며 이때 동사는 ‘bring’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어 자동사 문장에서 주어가 변경되어 영어 타동사 무생물주

어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모든 문장에서 한국어 부사구가 영어 주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는 다시 장소의 부사구가 영어 주어로 번역되는 유형, 사역동사를 사용한 유형, 기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4. 결론

지금까지 한·영 번역된 소설 세편에서 발췌한 타동사 구문 160개를 분석 대상으로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된 경우가 총 107(66.8%)개 문장이며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된 경우는 53(33.2%)개 이다. 이는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이 1:1 대응되어 번역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타동사 구문 한·영 번역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이다. 주어가 유지되면서 번역되는 문장은 총 104개(97.1%)이다. 생물 주어는 72개이며, 무생물 주어는 32개이다. 영어 생물 주어의 타동사 번역 비율이 무생물 주어보다 높은 이유는 한국어는 타동사 문장에서 무생물 주어가 영어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생물 주어 문장을 동사의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동사의 의미 변화가 없이 번역되는 경우가 58개이며 동사의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는 14개로 have와 일반 동사가 사용되어 번역되었다.

무생물 주어의 경우 주어가 유사행위자인 경우와 문장의 타동성이 낮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유사행위자(기계, 기관, 신체일부, 자연, 질병)인 경우가 19개이며 문장의 타동성이 낮은 경우는 13개이다. 유사행위자는 생물 주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며, 주어의 유생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어도 무생물 주어로 유지되어 번역된다. 한국어 무생물 주어 문장에서 타동성이 낮은 문장은 주어의 유생성의 제약에 자유로우므로 주어가 유지되어 번역되었다.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어 주어가 변경되는 문장은 3개(2.9%)이다. 이때 생물 주어인 경우에만 변화가 나타났고, 모든

문장의 한국어 주어가 영어 목적어로 격하되어 번역 되었으며, 영어 수여동사가 사용되었다. 한국어 주어가 영어의 ‘~에게’에 해당하는 간접목적어로 번역되었으며 직접목적어는 유지되었다. 이때 영어 주어는 실제로 이 행동을 하는 행위자이다.

둘째,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이다. 주어가 유지되면서 번역되는 문장은 총 39개(73.6%)이다. 이때 주어를 유생성에 따라 나누면 생물 주어는 7개이며, 무생물 주어는 32개이다.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무생물 주어의 번역 비율이 생물 주어 보다 많은 이유는 한국어가 유생성의 제약에 따라 무생물 주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동성이 낮은 자동사로 표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물 주어의 경우 이중주어를 사용한 문장과 동사 have와 take를 사용 하는 문장으로 번역되었다.

무생물 주어의 경우 동사의 의미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무생물 주어의 경우 동사의 의미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동사의 의미 변화가 없는 유형은 장소의 부사구가 영어의 목적어로 번역되는 경우와 ‘속격 - 명사구’ 형태가 ‘소유주 - have - 목적어’의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사의 의미변화가 있는 경우는 ‘make’가 사용되는 유형, ‘have’가 사용되는 유형이 있다.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될 때 주어가 변경 되는 구문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물 주어의 경우 한국어 주어가 목적어로 번역되는 유형이 3개 나타났다. 이때 발견된 문장은 모두 감각동사를 사용한 문장이다. 무생물 주어인 경우 모두 한국어 부사구가 영어 주어로 번역되었다. 이는 다시 장소의 부사구가 주어로 번역되는 유형, 사역동사를 사용한 유형,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자·타 동사의 한·영 번역에 있어 주어의 유생성이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 주어의 유생성이 높은 문장 일수록 한국어 타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주어가 유생성이

낮은 무생물 일수록 타동성이 낮은 한국어 자동사 문장이 영어 타동사 문장으로 번역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는 타동사 문장에서 무생물 주어가 영어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타동사 구문의 한·영 번역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더 다양한 예문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특히 상당수의 문장이 타동성이 낮은 문장이거나 타동성이 높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행위보다는 간접적인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분석자료 목록

- 신경숙. 2009. 「엄마를 부탁해」. 서울: 창비.
- 최윤. 1999. 열세가지 이름의 꽃향기. 「열세가지 이름의 꽃향기」, 44-117.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최윤. 1992.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205 - 289. 서울: 문학과 지성사.
- Kim, C. Y. 2011. *Please Look After Mom*. New York: Alfred A. Knope.
- Fulton, B. 2006. The Thirteen-Scent Flower. *There a Petal Silently Fal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ulton, B. 2006. There a Petal Silently Falls. *There a Petal Silently Fal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참고문헌

- 김은일.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3.
- 김은일. 2010. 「부호화 체계와 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은일, 김명애, 정연창. 2009. 유생성이 영한 번역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16.1, 1-17.
- 김은일, 정연창. 2006. 주어 생략과 모호성 조건. 「언어과학연구」 37, 93-112.
- 김은일, 정연창. 2008. 한국어 ‘되다’구문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기능문법적 설명. 「언어과학」 15.3, 61-82.
- 우형식. 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 Comrie, B. 1989.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s Typology (Seco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use, D. A. 1973. Some Thoughts in Agen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9: 11-23.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xon, R. M. W. 1979. Ergativity. *Language* 55, 59-139.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ume I*. Amsterdam: John Benjamins.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ume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2002. 「기능영문법 I & II」. 서울: 박이정).
- Givón, T.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 Ikegami, Y. 1991. 'Do-Language' and 'Become-Language': Two contrasting Types of Linguistic Representation. In Ikegami, Y (ed.), *The Empire of Signs: Semiotic Essays on Japanese Culture*, 285-326. Amsterdam: John Benjamins.
- Silverstein, M. 1976. Hierarchy of Features and Ergativity. In Dixon, R. M. W. (ed.), *Grammatical Categories in Australian Languages*.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Studies.

